



점집이 아니라 철학관에서 작명을 하고 택일을 하는 것도 미신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을 믿습니다. 믿음은 어떤 일, 어느 상황에서 하느님의 선하심에 의탁하는 행위이며 다짐입니다. 그럼에도 가정의 대소사에는 용한(?) 점쟁이나 철학관을 찾아서 세상의 것에 의지하고 위로를 얻으시지요? “우째 그리 잘 아느냐?” 구요? 솔직히 속보이는 경우가 허다해서 앉아서도 심리가 보인답니다. 작명가에게 이름을 얻은 아이에게, 사주가 좋다는 철학관의 지시에 따라 제왕절개분만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님,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요? ‘길일’이라는 날이면 어김없이 성당 혼배도 줄을 잇는 현실에서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점쟁이가 뽑아 준 그날, 정말 뻔뻔스럽게도 성당에서 혼배예식을 치르는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심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수님은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요한 16,9)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은 마귀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온갖 문화를 통해서 강하게 침투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있다면’ 고통을 외면하라고 부추기지요. 세상의 잘못된 풍습을 좇으면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당치않은 행위라는 사실을 밝혀드립니다. 점집이나 철학관을 찾는 일은 하느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 행위이기에 ‘대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찬미 |

(시편 33,1-9)

시작 성가

-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2번 “천지 생기기 전” 1,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해 주소서.
 - 주님! 저희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한 분이 시편 제3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3.1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곤은 이들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 2 비파로 주님을 찬송하며
열 줄 수금으로 그분께 찬미 노래 불러라.
- 3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환성과 함께 고운 가락 내어라.

- 4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다.
- 5 그분은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자애가 땅에 가득하네.
- 6 주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그분의 입김으로 그 모든 군대가 만들어졌네.
- 7 그분께서는 제방으로 모으듯 바닷물을 모으시고
대양을 곳집에다 넣으신다.
- 8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 9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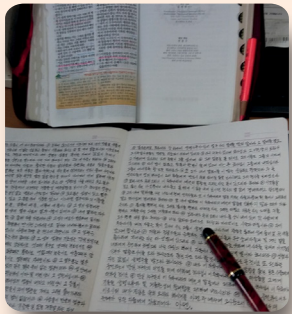
-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말씀’을 통하여 삶의 빛을 받은 체험을 나누어 봅시다.
- 성경 말씀을 통독했거나 필사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 주님을 경외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이 모두 그분을 두려워하리니,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생겨났기 때문이네. (33,8-9)

위의 시편 말씀을 읽으니 요한복음의 시작 부분이 떠오릅니다. “한 처음에 말씀(로고스)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다”(요한 1,1),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1,3),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1,10)

앞의 성경 말씀에서 “생겨난 것 치고 말씀을 통하지 않은 것은 없다”(요한 1,3)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의 말씀으로 생겨났고,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신 하느님’이 온 우주의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따라서 하느님 자체이시기도 한 ‘말씀’이라는 고리를 통하여 하느님과 나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하느님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바닷가에 나갔다. 아들이 물었다. ‘아빠, 바다의 끝은 어디에 있어?’ 아버지는 대답했다. ‘응, 저 수평선 너머 저 멀리에 있단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빠는 깨달았다. 바다의 끝은 저 너머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였다는 사실을.”

인간은 자신이 ‘바다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다 끝에 서서는 바다 끝이 저 바다 너머에 있다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존재라면(창세 1,26), 말씀이 인간의 중심에 이미 들어

와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에 내 안에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알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신명 30,14)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운수를 알기 위해 토정비결을 보거나 철학관을 찾지 마시고,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고 실천해 나간다면 올해 운수는 대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 ‘하느님을 육화’해 내는 삶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의 원천이며, 존재의 이유가 되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섭리 안에서 풍요로운 한해가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438번 “주께 감사드리자” 1,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삶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 |

- 삼천포본당 6구역 남양2반 소공동체 -

우리 소공동체는 본당 강윤철 요한보스코 신부님의 ‘행복한 신앙인, 기쁨의 공동체’라는 사목 방침에 따라 매주 월요일 늦은 8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록 같은 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모임이 흔치 않다 보니 형제자매님끼리 만나도 다소 낯설고 서먹해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는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새로운 반장님이 일을 맡으면서 우리 소공동체에는 자그마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반장님은 자신을 낮추며 적극적으로 교우들을 만나 모임의 취지와 필요성을 열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모임에 함께 참여하도록 이끌었던 것이지요. 반원들의 굳어진 마음을 열기까지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제자매님들의 끈끈한 애정과 관심이 큰 힘이 되어 지금은 매주 열 명 이상의 신자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 주는 저녁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낮에 모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 소공동체 모임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간에 있었던 삶의 생생한 경험담을 나눕니다. 가정과 직장을 비롯한 일상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계들 안에서 얼마만큼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신앙생활의 좋은 밑거름이 되어주어,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작은 힘이지만 헌신하고 봉사하여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6월 본당의 날 행사를 위해 6구역 신자들은 하나같이 뜻을 모아 풍물 연습을 했던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천포 12차 농악전수관과 삼천포여고 소강당에서 연습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지요. 특히 삼천포성당 주차장에서 늦은 시각까지 어둠을 무릅쓰고 차량 전조등을 밝혀가며 연습하고, 흥겹게 어울리며 신명나는 놀이 한마당을 연출한 것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가슴 뿌듯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시월에는 모처럼 남해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삼천포성당 6구역 남양2반 소공동체 모임은 훗날 하느님 나라에서도 함께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약속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에 힘이되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품 안에서 더욱 올곧은 신심을 기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소공동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